
2026년 8월
거짓 구인광고 통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

2026. 09. 10. [목]

목 차

I. 2026년 8월 거짓 구인광고 통합 모니터링 결과	1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참고1. 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 현황 및 분석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참고2. 불법 해외취업 의심 기획 모니터링 / 체류자격	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026년 8월 거짓 구인광고 통합 모니터링 결과



총 모니터링
58,255 건



의심광고
532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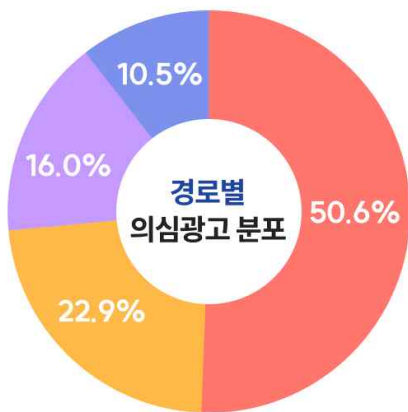


조치완료
483 건



조치 확인 중
49 건

거짓구인 의심광고 분포 및 조치현황



주요 포털 사이트	269 건
SNS	122 건
기타 직업정보제공사업자	85 건
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	56 건

조치현황

삭제	26 건	수정·유지	66 건	신고	391 건
----	------	-------	------	----	-------

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 순위

1위	고수익	418건 (16.6%)
2위	해외취업	305건 (12.1%)
3위	SNS 유도	286건 (11.4%)
4위	비자	237건 (9.4%)
5위	숙식제공	150건 (5.9%)

거짓 구인광고 기획 모니터링

불법 해외취업(체류자격) 의심 구인광고

미국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체류자격(ESTA·B1·B2 비자)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, 구직자를 현지 사업장에 투입시켜 불법 취업 및 출입국법 위반에 연루

2026년 8월 거짓 구인광고 통합 모니터링 결과

□ 점검기간: 2026년 8월 3일(월) ~ 8월 31일(월)

□ 점검대상

○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

* 주요 플랫폼 : 잡코리아, 사람인 등 16개 / 기타 플랫폼 : 중소 채용 플랫폼 573개

○ 주요 포털 사이트(네이버, 다음 등) 및 SNS(텔레그램, 틱톡 등)

□ 점검방법: 『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』 기반 점검(이미지형 구인광고건 포함)

□ 점검결과

○ 총 58,255건 중 거짓 구인 의심광고 532건, 조치완료 483건, 조치확인중 49건

□ 주요내용

○ 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 중 **고수익**, **해외취업**, **SNS유도** 비중이 40.1%를 차지

- ‘비자’, ‘숙식제공’, ‘근무지미기재’ 등의 키워드가 ‘해외취업’과 연관될 경우 불법 해외취업 의심 구인광고로 분류

○ 불법 해외취업 의심 기획 모니터링

- 미국 진출 국내기업 및 하도급 협력업체의 현장 투입인력 중 취업 활동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체류자격으로 현지 사업장에 투입시키는 불법 해외취업 유도

<8월 거짓 구인광고 통합 모니터링 결과>

(단위: 건)

연 번	구 분	구인광고 모니터링 (A)	거짓 구인 의심광고 (B)	의심광고 비중 (B/A*100)	조치완료			
					삭제 ¹⁾	수정/ 유지 ²⁾	신고 ³⁾	계
1	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	44,302	56	0.13%	21	35	0	56
2	기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	13,953	85	0.61%	5	31	0	36
소 계		58,255	141	0.24%	26	66	0	92
3	주요 포털 사이트	-	269	-	0	0	269	269
4	SNS	-	122	-	0	0	122	122
소 계		-	391	-	0	0	391	391
합 계		58,255	532	0.91%	26	66	391	483

※ 조치확인중: 49건(기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)

1) 해당 거짓 구인광고 삭제 처리

2)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구인광고 유지 또는 수정 게시

3) 포털 또는 SNS 내 공식 채널 신고

※ 경찰청 협업 모니터링

○ (점검결과) 총 274건

- 사칭 피해사례 150건, 사칭 사이트 124건

참고1

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 현황 및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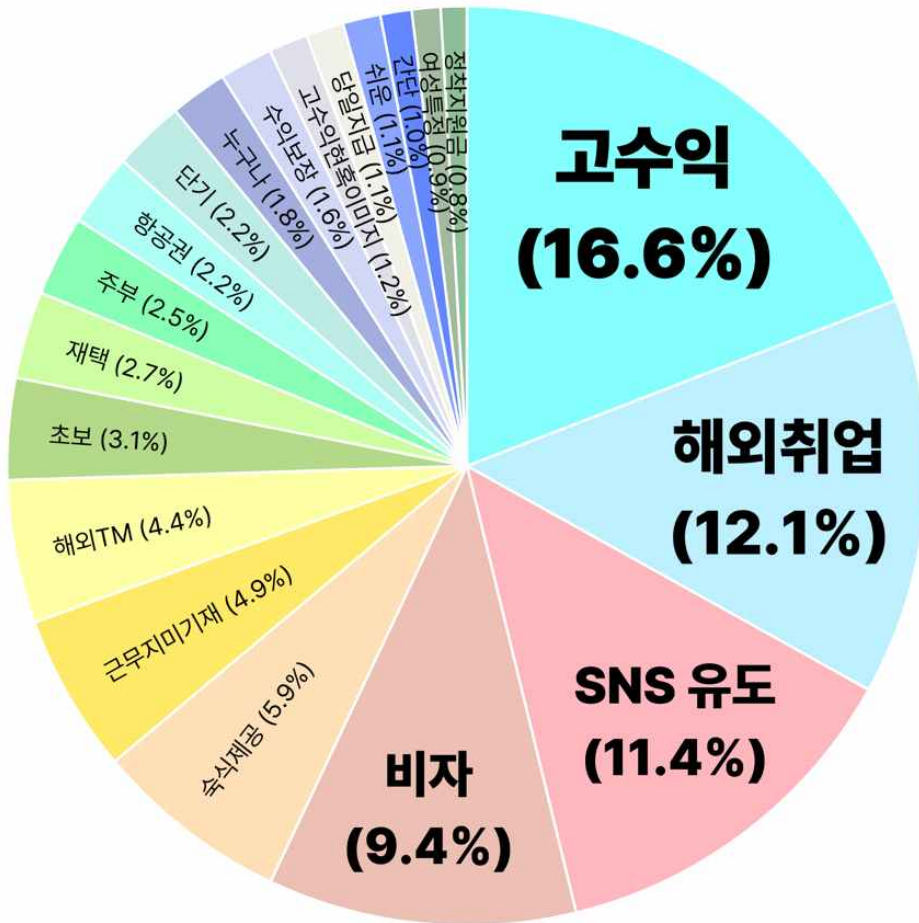
□ 2026년 8월 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 분포

< 2026년 8월 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 >

연번	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	8월 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 횟수	7월 거짓 구인광고 의심 키워드 횟수	전월대비 비중차(%P)	전월대비 증감률(%)
1	고수익	418(16.6%)	482(18.3%)	▼ 1.7%P	▼ 13.3%
2	해외취업	305(12.1%)	21(0.8%)	▲ 11.3%P	▲ 1352.4%
3	SNS유도	286(11.4%)	314(11.9%)	▼ 0.5%P	▼ 8.9%
4	비자	237(9.4%)	10(0.4%)	▲ 9.0%P	▲ 2270.0%
5	숙식제공	150(5.9%)	21(0.8%)	▲ 5.1%P	▲ 614.3%
6	근무지미기재	122(4.9%)	-	▲ 4.9%P	신규
7	해외TM	110(4.4%)	21(0.8%)	▲ 3.6%P	▲ 423.8%
8	초보	78(3.1%)	118(4.5%)	▼ 1.4%P	▼ 33.9%
9	재택	67(2.7%)	180(6.8%)	▼ 4.1%P	▼ 62.8%
10	주부	62(2.5%)	174(6.6%)	▼ 4.1%P	▼ 64.4%
11	항공권	56(2.2%)	19(0.7%)	▲ 1.5%P	▲ 194.7%
12	단기	55(2.2%)	32(1.2%)	▲ 1.0%P	▲ 71.9%
13	누구나	44(1.8%)	76(2.9%)	▼ 1.1%P	▼ 42.1%
14	수익보장	41(1.6%)	27(1.0%)	▲ 0.6%P	▲ 51.9%
15	고수익현혹이미지	30(1.2%)	27(1.0%)	▲ 0.2%P	▲ 11.1%
16	당일지급	29(1.1%)	94(3.6%)	▼ 2.5%P	▼ 69.1%
17	쉬운	29(1.1%)	46(1.7%)	▼ 0.6%P	▼ 37.0%
18	간단	24(1.0%)	45(1.7%)	▼ 0.7%P	▼ 46.7%
19	여성특정	22(0.9%)	55(2.1%)	▼ 1.2%P	▼ 60.0%
20	정착지원금	20(0.8%)	2(0.1%)	▲ 0.7%P	▲ 900.0%
21	기타	329(13.1%)	873(33.1%)	▼ 20.0%P	▼ 62.3%
계		2,514(100%)	2,637(100%)	-	▼ 4.7%

※ 거짓 구인 의심광고 건수와 의심 키워드의 총 수가 불일치 하는 이유

- 거짓 구인 의심광고 1건 기준 의심 키워드가 1개 또는 2개 이상으로 분류가 가능



□ 의심 키워드 분석

- '**고수익**' 관련 키워드(16.6%)가 전월에 이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- 고수익 관련 키워드 : 고수익, 고소득, 고액, 고급여, 고연봉, 고편이, 월천가능 등
- '**해외취업**'(12.1%), '**비자**'(9.4%), '**숙식제공**'(5.9%), '**근무지미기재**'(4.9%)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국 내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(B1, B2, ESTA)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해외취업 구인광고가 다수 확인되고, 해당 구인광고들은 “월 800~1000만원”, “월천가능” 등 고수익을 내세워 구직자를 현혹하고 있음
- '**SNS 유도**'(11.4%), '**해외TM**'(4.4%), '**항공권**'(2.2%), '**누구나**'(1.8%), '**정착지원금**'(0.8%) 관련 키워드와 함께 '텔레그램 문의', '초보 가능', '30분 교육'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직자를 유인하는 구인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, 해외취업을 빙자한 '보이스피싱' 등 범죄 가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

□ 추진배경

- 채용 플랫폼 및 포털/SNS 내 불법 해외취업 구인광고 다수 확인
 - 최근 미국 진출 국내기업 및 하도급 협력업체의 현장 투입인력 중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체류자격 입국 사례가 문제로 제기

□ 점검기간 : 2026년 8월 4일(화) ~ 8월 14일(금)

□ 점검대상

- (대상) 미국 지역 내 사업장 및 현장 투입 인력 모집 공고
- (범위) 채용 플랫폼 및 주요 포털, SNS 등 공개 게시된 구인광고

□ 점검내용

- (체류자격 오인)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른 전자여행허가(ESTA) 및 B-1(출장), B-2(관광) 비자 등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체류자격만으로 미국 현지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·광고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구인광고
- (구인자 불명확) 공고상 업체명·성명 등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거짓 구인이 의심되는 구인광고
- (근무조건 불명확) 미국 내 근무지, 근로조건 등 중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구인광고

□ 점검결과 : 의심광고 208건 확인 및 조치완료

(단위: 건)

연번	구 분	거짓 구인 의심광고	조치완료		
			삭제 ¹⁾	수정/유지 ²⁾	신고 ³⁾
1	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	21	3	18	0
2	기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	31	1	30	0
3	주요 포털 사이트	124	34	0	90
4	SNS	32	0	0	32
합 계		208	38	48	122

1) 해당 거짓 구인광고 삭제 처리

2)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공고 유지 또는 수정 게시

3) 포털 또는 SNS 내 공식 채널 신고

○ 체류자격(비자) 의심 키워드 분포

- “B1 비자” 키워드가 80.8%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

(단위: 건)

연번	구 분	의심 키워드			
		비자			합계
		B1	B2	ESTA	
1	주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	21	4	-	25
2	기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	31	1	-	32
3	주요 포털 사이트	114	15	19	148
4	SNS	32	8	-	40
합 계		198	28	19	245

※ 거짓 구인 의심광고 건수와 의심 키워드 합계가 불일치 하는 이유

- 거짓 구인 의심광고 1건 기준 의심 키워드가 2개 이상 가능(예시: 의심광고 내용 중 B1, B2가 모두 표기)

□ 플랫폼별 조치결과

○ 주요/기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플랫폼

- 비자 의심 키워드가 표기되어 있는 구인광고가 해외취업이 아닌 국내 채용공고로 분류되고, 공고에 기재된 비자 조건 또한 미국 현지 취업이 아닌 미국 출장이 가능한 지원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확인됨
- 의심 52건 중 48건(92.3%)이 수정·유지하기로 조치 완료
- 비자 의심 키워드가 표기되어 있으나 적법한 구인광고로 확인 완료

○ 주요 포털 사이트

- 비자 의심 키워드가 표기된 구인광고 대부분이 거짓 의심 구인광고로 확인되고, 카페 외 블로그 및 댓글에서도 발견되어 모든 건 조치(신고) 완료
- 일부 포털 사이트의 경우, 8월부터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명백한 법 위반이 확인된 건 중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의 명확한 요청이 있는 건에 한하여 조치(삭제)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, 주요 포털 모니터링 의심 124건 중 90건(72.5%)은 삭제가 아닌 신고에 그침

○ SNS

- 오픈채팅방 내 메시지 신고 완료
- 오픈채팅방 메시지는 휘발성에 해당하여 삭제 조치가 아닌 오픈채팅방 운영자에게 해당 내용 고지
- 오픈채팅방 제외 개인 SNS에서는 비자 의심 키워드 미발견